

[바빠도본다] 믿고보는 아티스트가 온다

김호정 기자 [wisehj@joongang.co.kr] 입력 2015.03.17 05:00



1. 당신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...

삶과 죽음, 인생의 이면을 비디오로 그려내는 현대 영상 시인, 빌 비올라(64)의 개인전이 열린다. 런던 세인트폴 성당에서 지난해 공개되면서 '현대판 성화'로 화제를 모았던 '순교자' 시리즈 중 '물의 순교자', 어머니와 아들이 모래바람 부는 뜨거운 사막을 걸어서 건너는 여정을 담은 '조상', 검고 붉고 희고 투명한 액체를 차례로 뒤집어 쓰며 고통과 두려움 속에 변모하고 재생되는 인간을 보여주는 '도치된 탄생' 등 지난 3년간 만든 신작 일곱 점이 출품됐다. 젊은 시절 백남준의 조수로 일하기도 했던 그는 "시간은 무한하되 가질 수 없다. 한 방향으로 흐르지만 우리는 비디오나 기술을 활용해 때로 그 방향을 되돌린다"라고 말했다.

◇빌 비올라= 5월 3일까지. 서울 삼청로 국제갤러리. 무료. 02-735-8449.